# 확고해진 중앙銀 독립성… 금리인상 통해 한·미역전 막을듯

〈내달〉 〈금리〉

**이주열 한은총재 연임**

## 韓·美 기준금리 역전 예상 등 악재·지방선거 염두한 인사

## "기쁨보다 책임에 막중함 절감 韓경제 어려움 극복에 최선"

청와대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한다고 밝힌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이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4년 연임을 결정했다. 정부가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한·미 기준금리 역전 예상과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한국GM 구조조정 등 대내외 악재 및 6·13 지방선거를 염두한 인사라는 해석이다.

한은 총재의 연임은 지난 1951년~1956년 김유택 2대 한은 총재와 1970년~1978년 김성환 11대 한은 총재 이후 세 번째다. 특히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자리를 맡은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청와대의 연임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쁨보다 책임에 막중함을 절감한다"며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무려 44년 만의 한은 총재 연임 결정에 대해 "(총재 연임은)이전에 거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명된 것은 저 자신으로서도 큰 영광이지만 무엇보다도 한은으로서도 명예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요성 역할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연임으로 당장 이달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미국이 이달 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올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1.50%)보다 상단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의 통상압박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 속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까지 제기돼 당장 금리인상 논의 등 이 총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 4년간의 임기 중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연 1.25%의 최저금리를 유지하던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6년 5개월 만에 연 1.50%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

때문에 시장에선 오는 4월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총재의 연임에 따른 통화정책 연속성이 확보되면서 4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경기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시장에선 이 총재의 연임으로 4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연임 후 최우선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앙은행 정책의 중립성과 정책 운용의 자율성에 대해 인정받으면서 연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소상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中 수출 개시

## (유)코엔에프 유자차 상해서 판매

## 지원센터, 中 마트에 한국관 개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유)코엔에프'가 중국에 수출하는 유자차 가공품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중국 수출이 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유)코엔에프'가 해외 수출 판로개척지원 등을 통해 유자차 가공품을 중국에 첫 수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 길에 오른 (유)코엔에프의 유자차 가공품은 30g 소용량 포션팩(portion pack) 형태로 중국 상해의 올레마트에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올레마트는 중국 국유 유통업체인 환윤그룹이 경영하는 마트로 중국 내 가장 큰 규모를 갖춘 슈퍼마켓 체인점이다.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수출확대를 위해 기업과 공동으로 포장재 개선 등 제품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국 판매 유통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입주기업인 '애니웨이코리아'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른 입주기업인 '㈜가야F&D'의 단호박식혜와 '㈜핀컴퍼니'의 치즈케이크 등도 중국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조미료와 소스·음료를 제조하는 ㈜가야F&D는 부경대 식품공학과 출신들이 모여 창업한 업체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핀컴퍼니는 치즈케이크를 현재 스타벅스와 신세계푸드 등에 납품 중이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입주기업 중국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 MOU를 체결한 '애니웨이차이나'를 통해 3월 중 중국 상해 올레마트에 한국식품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한국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황규황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장은 "수출지향형 국가식품산업단지라는 조성 취지에 걸맞게 첫 해외 수출이 시작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업체와의 협력도모 등 입주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세계최대 美 '크루즈 산업 박람회'서 韓 홍보

## 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크루즈 산업·관광 활성화 추진

지난해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 때 설치된 우리나라 홍보 부스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크루즈 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국에서 열리는 '2018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2018 Seatrade Cruise Global)'에 참석해 한국 기항지를 홍보하고 월드 크루즈 유치 활동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198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는 세계 크루즈 선사와 건조사, 선용품 공급업체, 모항과 기항지 등 크루즈와 관련된 90여 개국·800개 기관의 1만10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 산업 박람회다.

올해 박람회는 미국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열린다.

우리나라는 해수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기항지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 국내 크루즈 관계기관 3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가입한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회원국(6개국)과 공동으로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 700여 명을 초청하는 한국 기항지 홍보행사(Welcome Reception Asia Cruise Corporation)를 3월 6일에 개최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박람회장 내 한국 기항지 홍보관을 설치해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한편, 부스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과시식', '한복체험 및 사진촬영' 등 한국 문화 체험 이벤트를 진행, 한국의 문화적 매력을 전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소환조사' 이뤄질까

## 검찰, 오늘께 중간 수사결과 보고 문 총장에 수사계획 재가 받기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주요 수사를 마치고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므로, 방문이나 서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경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종기자 joker@

# 근로자 60% 직장내 괴롭힘 "대책없이 방치"

## "회사가 노력한다" 41% 불과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사실상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20세~50세 미만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방지를 위해 현 직장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47.4%에 달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1.4%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괴롭힘 방지를 위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회사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41.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 또는 다수인이 적정 범위를 넘어 특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사에 따르면 사내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강습이나 연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고, 상사가 부하를 대하는 방법과 관련한 강습이나 연수를 받았다는 답은 25.2%, 직장 내 의사소통 활성화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답도 37.2%에 불과했다.

/세종=최신웅 기자